



그림 | 탁희성 비오·글 | 김옥희 안나 수녀

내 말을 전하라 / 기해박해 때 최창흠 성인의 가족이 모두 체포되었다. 성인이 참수형을 받기 직전에 휘광이에게 옥에 있는 아내와 딸에게 “순교하게 됨을 주님께 감사하고 찬미하면서 나의 뒤를 따르기 바란다”는 이 한마디를 전해 달라고 부탁하며 순교하였다.

조신철 성인 일가 중에서 2위

성 최창흠 베드로(1787~1839) 조신철 성인의 장인으로서 울에서 태어난 그는 손소벽 막달레나 성녀의 남편이다. 어려서 입교하였으나 1801년 신유박해 때 이복형 최창현이 순교한 다음 냉담하였다. 서른 살에 결혼하여 아내와 함께 교리를 다시 배우기 시작, 1821년 전국에 콜레라가 퍼지자 아내와 함께 대세를 받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였다. 1839년 기해박해 때 온가족이 체포되었다. 사위 조신철이 북경에서 가져온 교회 물건이 발견되어 포청에서 혹형을 당했고, 형조로 이송된 다음에도 세 번의 혹독한 형문을 받았다. 형장으로 끌려가면서 옥졸에게 여감(女監)의 아내와 딸한테 “내 운명을 슬퍼하지 말고, 이러한 큰 은혜를 주님께 감사하며 잊지 말고 나를 따라 오라”고 전해줄 것을 부탁하였다. 12월 29일 서울 서소문 밖 형장에서 53세의 나이로 참수형으로 순교하였다.

성녀 손소벽 막달레나(1801~1840) 서울의 열심한 교우 집안에서 태어났다. 1801년 신유박해 때 아버지가 순교하고 얼마 안되어 어머니마저 세상을 떠나자 외할머니 밑에서 자랐다. 열일곱 살 때 최창흠 베드로와 결혼해 대세를 받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였다. 기해박해가 일어난 1839년 6월 가족과 함께 체포되어 혹형과 고문을 당하였다. 이런 고통 중에도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하느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내 힘만 갖고는 내 몸을 뜯어 먹는 빈대, 벼룩조차 잠시라도 견뎌내지 못할 것입니다. 시련을 참아 받는 힘은 하느님한테서 옵니다”라고 말하였다. 형조에서 세 번의 형문을 받았으나 굳건히 이겨내고 1840년 1월 31일 서울 당고개에서 40세의 나이로 참수형으로 치명하였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고,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요한 6,35).

배고픔과 목마름을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는, 육신적인 배고픔이다. 예수께서는 당신께 찾아오는 모든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요구를 들으시어 현세적인 구원을 주셨다.

둘째는, 영혼의 정신적인 배고픔이다. “사람은 빵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루카 4,4). 영혼과 육신으로 결합된 존재이기 때문이다. 예수께서는 영혼의 배고픔과 갈증도 채워 주셨다. 아무리 부유한 사람이라도 공허와 고독과 정신적 가난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께서는 이것을 해결하는 복음을 전해 주셨다.

세상은 지금 무엇을 먹고 또 얼마나 많이 먹느냐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그리고 자기 배만 채우려는 이기주의가 세상을 병들게 하고 망치고 있다.

신앙인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진정한 삶에 대한 갈증이다. 하지만 우리는 끊임없는 갈증과 배고픔을 느끼면서도 우리가 느끼는 갈증과 배고픔이 무엇에 대한 것인지, 아니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

하느님께서서는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 우리 모두를 생명의 잔치상에 초대하시고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신다.

“자, 목마른 자들아, 모두 물가로 오너라. 돈이 없는 자들도 와서 사 먹어라.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술과 젖을 사라. 너희는 어찌하여 양식도 못 되는 것에 돈을 쓰고 배불리지도 못하는 것에 수고를 들이느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 오너라. 들어라. 너희가 살리라”(이사 55, 1-2ㄱ,3ㄱ).

결국 이 하느님의 사랑을, 삶의 잔치상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우리 신앙인에게 중요한 과제이다. 다시말해 우리의 갈증이 사랑이나 빵

이나 명예나 인격이나에 따라 하느님의 초대를 받아들이는 태도가 달라지며, 새로운 삶이 결정되는 것이다.

매일의 미사성제 안에서 예수께서는 빵과 포도주를 당신의 몸과 피다 하시며 먹고 마시라고 주신다. ‘몸’, ‘피’라는 말씨는 ‘살’과 ‘피’ 자체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예수님 자신, 즉 예수님의 인격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전체를 먹고 마셔야 한다는 뜻이다.

기적의 참 의미는 무엇일까? 인간의 구원

요청에 대한 하느님의 응답이요, 하느님 현존을 드러내고 우리를 신앙으로 인도하는 것이다. 빵을 많게 하신 기적 역시 하느님 현존을 나타내면서, 하느님의 속성 중의 하나인 ‘나눔’을 보여 주신 사건이다.

성체성사의 의미는 명료하다. ‘나눔의 신비’이다. 생명의 빵에 관한 오늘 말씀이나 최후만찬 이야기, 또는 빵을 많게 한 기적에서 보듯이 기적은 나눔에서 생긴다. 생명은 기쁨이며, 기쁨은 나누어야 더 커지고 많아진다. 그게 기적이다. ‘우리 끼리만’ 나누고 즐기는 것이 아니다. ‘우리’라는 범위에 한정되지 않는다. 마치 잔칫집과 같다. 집으로 돌아가는 하객들이 잔치 음식을 싸들고 가듯이, 우리도 또다시 나눔 기쁨을 싸들고 세상에 나아가 ‘다른 이들’과 나누어야 하는 것이다. 자신의 ‘몸’을 ‘생명’이 되는 ‘음식’으로 내어 주신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나눔의 신비를 묵상 해 보자.



정성만 세례자 요한 신부
(소룡동 성당 주임)



구약성경과 신약성경

가나안 땅에 살던 옛 이스라엘 백성은 오로지 야훼 한 분만을 하느님으로 인정하고 섬겨왔다. 이 백성은 자신들과 야훼 하느님을 연결해 주는 특수한 관계를 ‘계약(契約)’이라는 법적인 용어로 표현하였으며, 이 계약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곧 하느님의 백성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라 믿었다. 이점이 이스라엘과 타민족을 구별해주는 특징이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 계약을 중심으로 전개되며 그러한 신앙 역사를 기록한 경전이 바로 ‘구약성경’이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 경전을 부를 때 ‘구약’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는다. 유대교 신앙에서는 구약과 신약이 따로 있지 않고 하느님과 이스라엘이 시나이 산에서 맺은 유일한 계약만 있기 때문이다. 물론 예언자들이 새로운 계약을 예고했지만, 유대인들은 옛 계약을 갱신하는 새 계약, 곧 구원에 대한 하느님의 약속이 아직 실현되지 않았다고 믿는다. 따라서 ‘구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옛 계약을 완성하는 새 계약이 실현되었다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관점에서 사용되는 용어다.

서기 1세기경에는 계약의 백성 이스라엘 안에서 신앙적으로 새로운 변화가 싹트기 시작했다. 나자렛 출신 예수라는 인물이 하느님의 아들이시며 세상 구원을 위해 파견된 메시아이심을 깨달은 이들이 신앙 공동체를 형성했기 때문이다. 예수의 제자이기를 자처한 이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다(사도 11,26). 이들은 시나이 계약을 예수 그리스도의 새 계약에 대한 예표로 이해했고, 옛 계약에 토대를 둔 하느님의 구원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실현되었다고 믿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 시대에 계시된 ‘하느님의 말씀’ 자체라고 믿었으며,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지나온 역사와 그들이 전해준 모든 기록(구약성경)의 본래적인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다고 믿었다. 이렇게 형성된 초기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자신들의 신앙 체험과 그

신앙을 바탕으로 형성된 공동체 삶을 기억하고 전하기 위해, 그리고 다른 그리스도인 공동체와 서로 나누기 위해 기록으로 옮겨 놓은 것이 ‘신약성경’이다.

교회와 복음

이스라엘에 대한 하느님의 구원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실현되었다고 확신하는 이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네 믿음을 확고히 하고 그 신앙을 삶으로 실천하고 선포하기 위해 공동체를 형성했다. 이 공동체를 ‘교회’라고 하며, 교회는 자기네가 믿고 선포하는 신앙의 내용을 ‘복음’이라고 불렀다. 이 ‘복음’의 중심 내용이자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도 ‘복음’이라는 말을 사용하셨는데, 이는 당신 안에서 예언자들이 예고한 약속이 성취되었으며 하느님 나라가 도래했다는 구원 소식을 의미했다(마르 1,14-15). 예수님 이후, 복음은 인류를 위해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 자체를 가리키게 되었다. 특히 바오로 사도는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로마 15,19; 1코린 9,12)이라 칭하면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은 역사적 사건이며, 하느님의 계시와 약속을 담은 성경의 말씀을 실현하는 구원 사건이고, 인간을 죄와 죽음에서 해방시켜주는 ‘파스카의 승리’라고 선포했다. 이 복음이 교회 공동체의 삶과 신앙의 출발점이며 핵심이다.

초세기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복음 전파는 구전 선포에 그치지 않고 글로 기록되기 시작했다. 복음의 핵심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사건뿐만 아니라, 사도들로부터 전해져 오던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도 기록으로 엮여졌다. 그렇게 완성된 것이 바로 네 권의 복음서(마태오복음서, 마르코복음서, 루카복음서, 요한복음서)다. 2세기 중엽, 리용의 이레네오를 시작으로 ‘복음’이라는 용어는 선포되는 말씀뿐만 아니라 네 복음서를 포함하여 기록으로 전해지는 가르침들까지도 지칭하게 되었다.

초등부 주일학교 어린이와 다문화가정 어린이가 함께 하는 다문화 캠프

지난 7월 23일(월)부터 25일(수)까지 의정부 한마음 수련원에서 초등부 연합 여름 캠프가 열렸다. 서울 가톨릭청년회가 청소년국 초등부의 협력을 받아 주최한 이 행사는 초등학생 3~6년을 대상으로 다문화가정 어린이 150명과 본당 어린이 150명이 참가했다.

캠프 주제는 '고마워요, 사랑해요'로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인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구립 서초유스센터, 시립 보라매청소년수련관, 시립 성동청소년수련관이 공동 주관하였고 문화 관광부, 김수환 추기경 연구소가 후원했다. 이 캠프는 서로에 대한 다름과 어울림에 대하여 이해시키고, 공동체 생활과 관계 형성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데 그 의미를 두고 있다. 전주교구에서는 다문화가정 어린이 6명과 교사 1명, 신학생 1명이 참가했다. 일정은 첫째 날 오후 2시 입소하여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둘째 날 물놀이, 지구마을 불놀이, 마지



막날 정리 프로그램인 '고마워요, 사랑해요!'에 이어서 점심 식사 후 파견미사로 끝맺었다. 인솔교사인 이진영 자매는 "참가한 아이들이 처음에는 다문화가정 어린이만 대상으로 하

는 줄 알았지만 막상 각 활동에 들어가서는 본당 주일학교 어린이들과 스스로 잘 어울리는 것을 보면서 어른들도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는 고정관념을 버리고 학교에서나 사회에서나 구별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구 이주사목 주일학교인 '무지개 주일학교'는 매 주 일요일 가톨릭센터에서 약 25명의 어린이들이 모여서 1시 30분부터 교리공부를 하고 2시 30분부터는 중앙 성당에서 어른들과 함께 영어미사를 봉헌하고 있다. 교사 4명이 유치부~중학생까지의 아이들을 담당하고 있으며 전주에 거주하는 아이들이 대부분이고 봄, 가을 소풍과 물놀이 행사도 실시하고 있다. 9월부터는 가톨릭센터에서 별도의 어린이 미사와 교리시간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미원 기자]

장계 성당 초남이 성지 제초 작업 봉사

장계 성당(주임=박인근 신부) 묵상회원들이 지난 7월 24일(화) 초남이 성지를 찾아 봉사활동을 벌였다.



11명의 묵상회원들은 성지에서 미사를 마치고 유항검 교리당 주변과 집터 등 주변을 예초기와 낫으로 잡초를 제거하고 화단의 풀을 뽑으며 구슬땀을 흘렸다. 장계 본당 75세부터 92세까지의 어르신들로 구성된 묵상회

는 10여년 전 조직된 단체로 매월 1회씩 정기회의를 통해 기도과 봉사활동을 벌이고 있다. [홍보국 정례]

고산 성당 어르신 보양식 대접

고산 성당(주임=백승운 신부)은 지난 7월 22일(주일) 미사 후 대건회 주최로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무더위에 건강하게 지내시도록 여러 가지 약재를 넣고 끓인 삼계탕을 대접해 드렸다. 이날 어르신들의 건강을 함께 기원하며 서로 하나되는 시간을 보냈다. [홍보국 정례]

온고을 합동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상선
남준희
강상진(안셀보)

전주 법원앞 동승빌딩 403호
☎(063)253-3750~1

•대학병원 처방 전문

대 학 종 로 약 국

약사 정귀진(요셉)
약사 배석환(엘리아)

전북대학병원 제2주차장 앞
☎(063)274-5425, FAX274-5424

대학병원 전문 앞

오 렌 지 염약국

약사 염정열(알로이시오)
약사 이정순(루시아)

T.275-5453
FAX 278-5453

도심속의 420병상 매머드급 병원
(전문재활, 인공신장실 운영)

효사랑 전주 요양병원

이사장 박진상(루가)
병원장 김정연(안젤라)

문의 : 278-8288,
010-9906-5702 김강일(토마스)

함열반석산업석재

석물*경계석*납골*

선반원형*건축석*장대석
861-4848, 010-3689-2390

FAX : (063)861-4849

대표 : 김선익(베드로) 김단영(루시아)
ME : 120차 부부(함열 본당)

서울영상의학과 진료

MRI(자기공명영상) MRA촬영 1.5T 지멘스
MD CT(컴퓨터 촬영), 16 채널 지멘스
MAMMOGRAM(유방 촬영) : 지멘스
특수 촬영. 투시 : 식도, 위, 대장, 요로,
자궁나관, 탈장촬영

초음파검사 : 복부, 유방, 갑상선, 근골격계
일반 X-선 촬영
원장 : 박인숙(이나다시아) 정진영
전주시 금암동 분수대 로터리 / 278-1313

대양 종합 가구

<김용성 바오로>

가정용, 혼수, 사무용가구

전시장 :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2가 529-14(완산구청 앞)

문의 : 063-236-0440
FAX : 063-236-3443

장문외과(대장항문병 전문병원)

치질·변비·복강경

(위·대장내시경 동시검사 시행)

전문의 최 성 양(루가)

전문의 안 해 선(사도요한)

전문의 이 철 중

www.jangmun.co.kr
대표전화☎(063)834-6000
익산 명동동 육교 옆

최근 2009년 1월 20일 용산 4구역 남일당 건물 옥상 망루에 올라간 철거민 5명과 경찰 1명이 25시간 만에 차디찬 시신이 돼 내려오던 날을 현장 기록으로 담은 '두개의 문'이라는 영화가 사회적인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철거민 5명의 죽음을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가족을 잃은 철거민들을 경찰의 죽음에 대한 가해자로 몰았습니다.

제주도 강정에서도 가해자는 무조건 강정주민들이거나 평화 활동가들, 그리고 그곳의 공사를 방해하는 우리들(?)입니다. 피해자는 우리나라 최대의 건축마피아이자 정치권력의 동반자인 삼성과 대림, 해군과 경찰입니다. 사실 말 못하는 최대 피해자는 수백, 수천 년 동안 제주도와 함께 했던 역사유물과 자연유산인 붉은발말뚝계, 연산호, 구렁비 바위, 강정 앞 바다의 자연 생명들입니다. 공권력을 대표하는 검찰, 경찰, 법원은 입지선정에서부터 추진과정과 절차, 불·탈법적인 공사 등의 문제를 바로잡고 환경과 생명, 평화와 인권이라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국민들을 피의자, 가해자라는 시각으로 철저히 '억징' 하는 반면 국방부와 해군, 시공업체의 잘못에 대해선 한없이 너그럽기만 합니다.

지난 5일 국방군사 시설(제주해군기지) 실시계획 승인 및 강정 절대보전지역 해제 무효 확인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이명박 정권이 말하는 법치주의가 무엇인지를 단적으로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 판결의 요지는 환경영향평가 시행 전에 이뤄진 국방부의 해군기지 실시계획 승인과 주민 의견 청취절차도 거치지 않은 절대보전지역 해제가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고, 사법부가 행정부의 시너 노릇을 자처하는 하위기관임을 입증한 사건임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것이며 민주적인 절차와 그 절차를 요청하는 주민들의 입장은 국책사업이라는 거대한 권

력 앞에서 아무런 존재도 아님을 법적으로 선포한 것입니다.

강정마을 후원계좌에 대한 경찰의 수사, 구렁비 발파를 몸으로 막아선 강정주민에 대한 구속과 유죄판결, 지난 6월 말에 개정 공포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해군의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과 그로 인해 관할 부대장의 허가 없이 군인 외에는 어떤 민간 선박이나 사람도 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인가요? 이런 곳에 어떻게 15만톤급 크루즈 선박이 들어올 수 있으며,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관광 미항이라고 선전할 수 있을까요? 상식적으로 볼 때 제주 강정항은 해군 군사기지를 위한 전용항구인 것입니다.

현재 '제주 해군기지 백지화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촛불 이어 켜기' 전국 순례행사가 제주에서 서울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주에서는 강우일 주교님과 함께하는 제주강정평화순례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강정아 너는 이 땅에서 가장 작은 고을이지만, 너에게서 온 나라의 평화가 시작되리라'는 생명과 평화의 노래가 우리 모두의 가슴에 울려 퍼지길 마음 모아 소망합니다. 생명은 하느님의 것이고, 하느님이 주신 생명을 잘 보존하고 지킬 때 평화가 온 누리에 함께 할 것입니다.

김창신 아우구스티노 신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사진 | 김지광 요한 보스코 신부(아중성당 보좌)



자연이준 생명한의원 추나/아깨·허리·무릎·팔꿈치·통증 손저림 / 두통·어지러움 백제로에서 서산동 성당 방면으로 50m 문의 : 063-253-2599 한의학박사:전제호(백토리)와오서진(마리마리)	중고차의 모든 것! (매매·이전·폐차까지) 중고차 114 (장동오토월드내) 박형규 미카엘, 심영애 루시아 011-655-5070, 244-0123	구 구 수 산 홍어무침 전문 꽃게장, 홍어회 전문 생선 도·소매 설병우(마르코), 송순원(마르타) 삼천동농·수산물시장내 ☎010-3128-7111, 227-9229	교통사고 보상상담 황선주손해사정사무소 소장/황선주(프란치스코) 232-4985/011-659-4985 기린로 용호빌딩 5층
유* 사 랑 외 과 유방·갑상선 전문클리닉 원장 소 우 성(스테파노) E마트 야외주차장 앞 ☎(063)253-6075	강성호 피부과 강성호(이나시오) 박민정(루비나) ☎(063)255-8700 롯데백화점 옆	수지점합·무릎관절·어깨전문 성 신 정 형 외 과 송천동 1가 송학아파트 옆 원장 하정환(대건 안드레아) 서유정(비시아) 전화예약제 251-0700	미르치과병원 임플란트·교정·치주·보철 전주시 중화산동 은하아파트 사거리 대표 원장 : 김중환(안드레아), 정희웅 대표전화 : 224-7700

작지만 강하고, 활력이 넘치는 공동체

장계 성당을 찾던 날, 오랜만에 나들이 하는 기분으로 먼 길을 나섰다.

군산에서 장계까지 승용차로 2시간 남짓 달리는 동안, 우리는 깊은 산중에 뚫린 대 여섯 개의 터널을 통과하였다. “하느님께서 보시니 참 좋았다.”(창세 1, 31)는 이 아름다운 산야에 흠집을 내듯 생겨난 터널들은 빠른 현대문명의 아이콘으로 자리하였다. 빠름과 편리함을 추구하면서 우리는 정작 소중한 하늘나라의 가치를 잃고 있지 않은 지 생각해 본다.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시들지도 않는 분것을 하늘에 마련해 두셨습니다”(1베드 1,4).

◎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장수군 장계면의 중심에 복음의 기치를 내걸고 자

리한 장계 성당은 58년의 역사를 지닌 중후한 신앙 공동체이다. 3000평의 여유로운 성당 터에는 밝고 산뜻한 성전과 부대시설, 그리고 뒤편에는 텃밭이 자리하여 고요한 시골교회의 정취를 담고 있다. 사무실 벽에는 본당을 거쳐 간 20여 명의 신부님들 사진이 공동체의 지난 여정을 대변하듯 걸려 있다.

주임 박인근(요한 보스코) 신부님에게 젊은 사제로서 농촌사목이 힘들지 않느냐고 여쭙보니 “여기엔 생각보다 아이들이 많아요. 초등부가 30~40명쯤 됩니다.”라는 의외의 답이 돌아온다. “요즘은 교회는 자꾸만 노화되고 있습니다. 교회는 미래의 주역들에게 투자하고 그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역동적인 곳이 되어야 합니다.” 박 신부님은 아이들이 찾는 교회를 이루고자 고심하였다. 그래서 초·중고등부가 함께 드리는 미사에서 강론시간을 아이들과 묻고 답하는 대화 형태로 꾸몄다. 좋은 생각이나 답을 내놓는 아이들에겐 과자나 사탕, 문화상품권을 선물한다. 아이들과 대화하다 보면 때로는 기발한 상상력이 튀어나와 신부님도 깜짝 놀란단다. 이렇듯 사제가 아이들과 소통하다 보니 농촌본당이지만 도시 못지않게 많은 아이들이 찾는 교회가 되었다. 대축일 미사에는 젊은이들이 기타를 치고 찬미하며 활력이 넘치고 세대를 아우르는 미사를 드린다. 마음도 밝아지고 교회가 젊어지는 느낌을 받았다. 또한 부·자녀 복사제도를 마련, 아버지와 자녀들이 같이 복사직을 수행하도록 배려했다. 아빠와 아이들이 서로 도와가며 복사직에 봉사하는 모습은 어린 신자들에게 가정공동체의 좋은 표상이 되었다. 신부님은 아이들이 다양한 문화체험을 하며 꿈을 펼치길 원한다. 그래서 작년 신앙캠프에는 교사들과 학생들이 프로그램을 짜서 서울의 대학로에서 연극관람과 신촌의 연세대학교 방문, 고궁 나들이를 다녀왔다. 앞으로 ‘떼제기도’ 등 청소년들을 신앙에





젖어들게 하는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있다며 신부님은 또 다른 청사진을 펼친다. 아이들을 사랑하는 목자의 열정과 함께 본당의 꿈나무들은 하느님 나라의 푸른 열매로 알차게 익어가고 있다.

◎ 서로를 위하고 배려하고

농촌의 하루는 참 바쁘다. 가축을 키우고 밭작물, 과수 농사 등으로 잠시도 쉴 틈이 없다. 하지만 장계 성당 신자들은 바쁜 중에도 본당 구석구석을 살피며 성전을 단장하는 일에 솔선수범한다. 그래서 마당에는 잡초가 자랄 틈이 없다. 장계 공동체는 새 신자나 전입교우들을 배려하고 따뜻이 환대하여 신앙생활에 잘 적응하게 하는 좋은 전통이 있다. 이런 전통은 신앙 선조들이 물려준 값진 유산임을 본당의 역사는 말해준다. 장계 성당은 1954년에 설립되었다. 그러나 전신(前身)인 장수 수분리 성당이나 장수읍 성당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닌 본당으로 박해시대에 신자들이 피난하여 살던 곳에 위치하였다. 1900년 이전에만 장수지역에는 24개의 공소가 있었다고 한다. 당시 장수지역을 사목했던 모두네 신부는 서한에서 “장수지역에는 매년 30~40명의 영세자가 나오고 모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 이는 무엇보다 토박이 신자들과 새 신자들 사이에 유대관계가 잘 이뤄지고, 가까이 살면서 서로 친교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적고 있다. 이런 신앙 선배들의 후예답게 본당에서 만난 이상화(가스팔) 사목회장과 사목위원들의 모습에도 따뜻함과 겸손이 배어있었다. 이 회장은 주임 신부님이 ‘기도하는 사제’로 통한다며 “신부님은 미사 준비에 철저하고 미사 30분 전에는 꼭 묵주기도를 봉헌한

다.”고 말한다. 또한 신자들이 고해성사 후에 생각할 수 있는 시간 5분을 마련, 삶을 성찰하게 한다. 농사일로 바쁜 교우들이 삶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사목을 펼치고 있다. 본당에는 숫자는 적지만 탄탄하게 뭉쳐 하느님을 찬양하는 성가대가 있다. 김희정(마리아)지휘자와 20여 명의 성가대원들은 각자의 재능을 주님께 봉헌하며 전례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 생명농업에 투신하는 숨은 일꾼들



장계 성당 관할구역에는 귀농자들이 모여 사는 ‘하늘 소 마을’이 있다. 12가구가 모여 사는데 다섯 집이 신자가정이다. 교구 가톨릭 농민회 장계분회 소속인 이들은 산중에 집을 짓고 유정란 계란과 오미자, 유기농 채소 등을 생산하고 있다. 이날 방문한 김지탁(토마스) 재정부장의 가정은 TV도 없고, 신문도 안보며 재래식 화장실을 쓰는 등 원시의 모습으로 살고 있었다. “여기선 화학비료나 농약, 합성세제 등 환경오염 물질은 일체 쓰지 않아요.” 아내인 로사리아 자매는 그래서 옷을 빨아도 색깔이 안 난다며 웃는다. 온갖 불편을 감수하면서 생명 농업에 투신하는 이 시대의 생명지킴이들. 이들 안에서 장계 공동체가 지향하는 푸르른 희망 공동체를 발견한다. 아이들이 북적이는 젊은 공동체를 꿈꾸며, 새로운 100년의 궤도를 향해 나아가는 장계 공동체의 내일이 생명의 빛처럼 밝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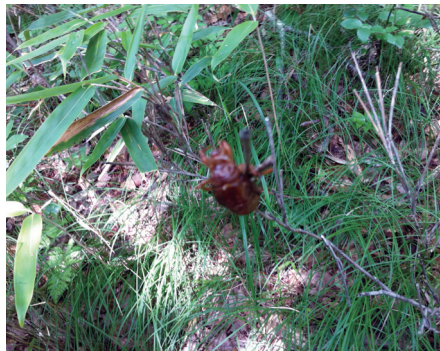
취재 | 신현숙, 오안라 · 사진 | 김영수 기자



너무 더워 사시나무 떨 듯 떨고 싶다.

도심의 무더위를 피해 숲길에 들자 계요등이 꽃을 피우며 반긴다.

딱충나무는 붉은 열매를 땅으로 내려 보냈고 온 몸이 다이아몬드 광산인 은사시나무는 바람이 자는 한낮인데도 무성한 잎들을 흔든다. 사시나무가 떠는 것이다. 나무의 우듬지가 바람의 기향지일까? 지전 같은 잎들 위로 바람이 정박해 흔들흔들 파도를 탄다. 저렇게 잎을 흔들 어대니 곤충들은 집을 짓지 않을 터. 쑥대머리 줄기엔 거품벌레가 멋있는 집을 짓고 살고 있다. 갈참나무에는 왕거위벌레가 집 공사 중이다. 강력한 큰턱으로 잎을 자르고 재단을 해 명석 말듯 돌돌 말아 올라간다. 바로 애벌레의 집을 짓는 것이다. 말린 잎사귀에 산란관을 꽂아 알을 낳으면 원기둥 모양의 집이 완성된다.



여름숲은 어미벌레들의 산란장이다. 큰 나무 아래 그늘진 곳에서 잘 자라는 좀작살나무의 잎을 들추면 큰납생이잎벌레들이 말뚝을 박고 살고 있다. 곤충들에겐 잎이 집이고 식당이고 학교이고 침대인 것이다. 큰납생이잎벌레는 탈피를 한 후 그 탈피허물을 등에 지고 다닌다. 탈피허물은 무섭게 생겨 포식자의 접근을 막는다. 이 큰납생이잎벌레는 어른벌레로 우화할 때에야 허물가면을 벗는다. 아기벌레로 살았던 시절을 기억하고 반추하기 위해서일지도 모른다.

“매애애앰 매애앰 맴맴” 매미들의 합창이 구성지다. 적요의 강물에 풍덩 몸을 던지는 물총새처럼 이 한낮, 숲속의 적요에 종들이 일제히 울린다. 내 사방은 얼마나 침묵했을까? 얼마나 귀를 닫고 살아왔길래 매미들이 저리 목청 높여 소리를 지르는 것일까? “목숨이 올 때는 한 데 모여 숨 끊어질락 말락 질펀히 울어 젖히는 거라고 여름

치 일력 한꺼번에 찌익, 짹, 찢어내듯”¹⁾ 울고 있는 것이다. 숲속의 매미의 족속들은 다 모여 화음을 내고 있어 사람의 족속인 나도 매미처럼 없는 날개라도 부벼야 될 것 같다.

충충나무와 말채나무도 매미의 느닷없는 화음에 가지를 척 내려 푸른 잎사귀로 음표를 그린다. 허공이 오션지인 것이다. 매미의 함성에 귀를 열고 마음을 열자 눈앞에서 매미의 악보가 펼쳐진다. 난만하던 매미의 울음이 그치자 숲은 다시 고요해진다. 사슴벌레와 노린재가 나무수피를 오르는 소리만 들린다. 사슴벌레 기어간 자리에 매미의 허물이 보인다. 매미의 새로운 목숨을 남긴 허물, 그 허물을 바라보며 허물의 의미를 생각했다. 매미는 허물을 남겼다. 7년에서 17년까지 어둠의 자식처럼 땅 속에 기거하다가 나무에 올라 잠시 숨을 고르고 바로 허물을 벗는다. 허물은 매미의 지난 삶이다. 매미의 아픔이고 슬픔이고 이력인 것이다. 굼벵이로 살았던 지난 허물을 벗고 빛나는 날개를 펴 창공을 차고 날아갔지만 그 허물을 그대로 남긴 것이다.

매미가 저리 우는 것은 경청을 하라는 것일까? 나는 매미의 허물을 경청하고자 했다. 어둠 속에서 굼벵이로 살아왔던 죽음과 삶의 경계인 저 허물! 허물을 벗어야만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 나는 그동안 남의 허물은 잘 발견했다. 나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새롭게 출발하게 하던 지난 날의 나의 허물은 감추고 묻어놓고 싶었다. 매미는 허물을 남겼다. 포식자도 두렵지 않은지 허물을 나무줄기에 붙여 놓았다. 매미의 허물 앞에 붙박이로 서 있는 내 머리 위에서 남의 허물을 가르키지 말고 내 허물을 직시하라고 매미가 울기 시작한다. 내 허물에는 귀를 닫고 내 허물에는 늘 침묵했던 내 가슴에, 맑고 투명한 우물물처럼 매미의 목청이 차오른다.

김계숙 요안나 (쌍백합 편집위원)

1) 이면우 시인의 ‘매미’ 라는 시의 일부

지난 7월, 대법관 4명과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의 임명 동의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있었다. 청문회를 하는 것은 후보자들의 도덕성과 자질을 꼼꼼히 살펴서 적격자를 찾아내고자 함이다. 그런데 청문회를 지켜보는 심사가 편치 않았다. 청문회 시장좌판이 맘에 들지 않아서였다. 게다가 때마침 대통령 선거 이야기를 그린 드라마가 소개하는 재판과정 등이 시청자들의 울분을 담아내고 있어서 더 그러했는지도 모르겠다.

청문회 증인으로 한진중공업 크레인에서 농성을 했던, 민주노총 부산지역 지도위원 김진숙 씨는 이렇게 증언했다. 농성 중이던 자신에게 청문회에 나온 대법관 후보자는 노동자의 현실을 도외시 한 가혹한 조치를 취했다는 것이다. “농성을 철회하고 크레인에서 내려올 때까지 하루 100만원씩 회사에 이행강제금을 내라.” 그래서 이행강제금은 무려 2억8천 만원까지 쌓였다고 한다.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이 달려 있는 사안이라면 현장 방문을 하는 등 사정을 알아봐야 하는데도 후보자는 사측의 일방적인 입장을 그대로 따랐다”면서 “100만원을 물리면 내려올 거라고 생각했다는 후보자의 답변에 더욱 모욕감과 절망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1200만 노동자를 대표해 대한민국 법에 절망하며, 후보자가 대법관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런 말도 했다. “이 땅에서 섬겨야 할 예수가 누구인지, 버려진 사람이 누구인지, 따뜻한 눈으로 되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한마디다.

드라마 ‘추적자’에 나오는 악덕 변호사는 대법관 출신이다. 그는, “육봤데이. (……) 육보그래이.”라며 능글맞게 웃어대는, 한 나라 최고 재벌의 꼭두각시다. 그런데 죄는 짓고도 벌은 받지 않으려는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벌을 받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있다. 억울하기 짝이 없다고 여기는 시청자들에게 안타까움을 준 주인공이다. 그래서 청문회 과정이 더 씁쓸하게 느껴졌는지 모르겠다.

이런 판에 생각나는 의인이 한 사람 있다. 사도(使徒)법관 김홍섭 바오로. 그는 서울고등법원 판사 시절에 반찬으로 단무지 한 가지만을 넣은 도시락을 가지고 출근했다고 한다. 그가 입은 양복은 남대문 시장에서 구입한 중고품이거나 아니면 장인이 입던 윗도리를 얻어다가 몸에 맞게 줄인 것이라고 한다.

그의 아내는 이렇게 회고했다. “병고로 시달릴 때 한번은 병원에 가면서 관용 지프를 타려다가 불호령을 들은 적이 있었지요.” 또 감사원장을 지낸 한승헌 변호사는 이런 글을 남겼다. “‘아무개 아무개를 사형에…’라고 극형을 선고하면서 재판장인 그는 목이 메었고 한참이나 머리를 숙여 묵념한 다음 이렇게 말했다. ‘하느님의 눈으로 보시면 어느 편이 죄인일는지 알 수 없는 노릇입니다. 불행히 이 사람이 능력이 부족하여 여러분을 죄인이라 단언하는 것이니 그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내가 본 김홍섭)

전주지방법원장 재임 시절, 그는 매일 전동 성당 새벽미사에 나왔다. 전주를 떠나면서는 치명자산에 동정부부를 기리는 빗돌을 남겼다.

한상갑 바오로 (전주교구 신앙문화유산 해설사)



교구장 일정

- **인보성체수도회 정기세미나 1차**
8월 6일(월) 본원
- **성녀 글라라 동정기념일 대축일미사**
8월 11일(토) 오전 10시 글라라 수도회
*주차는 작은자매의집을 이용해 주세요.
- **견진**
8월 12일(주일) 조춘동

미사 · 행사 · 모임

- **수녀와 함께하는 젊은이 기도모임**
8월 6일(월) 오후 7시 바오로딸(중앙성당 옆)
문의 : 252-3398
- **전주 사랑의 다리 월례미사**
8월 6일(월) 오전 10시 30분 교구청
- **교정사목후원회 군산월례미사**
8월 6일(월) 오전 10시 나운 2동
- **꾸르실로 여성 110차**
8월 9일(목)~12일(주일) 천호
- **서전주 하나회 미사**
8월 12일(주일) 오후 2시 삼천동

교육 · 피정 · 연수

- **제64차 탈출기 연수**
8월 9일(목)~12일(주일) 해월리
- **가족 피정(부모자녀 참 만남)**
일시: 8월 11일(토) 오전 9시~12일(주일)
오후 5시까지(1박 2일)
장소: 나바위 피정의 집
대상: 청소년(초등4~중고생)자녀와 부모
(부모 자녀 함께 참가)
참가비: 3인 가족 200,000원
4인 가족 250,000원
문의: 가정사목국 230-1031, FAX: 230-1063
- **예비신학생 하계연수**
8월 11일(토)~12일(주일)
- **이주민 여름캠프**
8월 11일(토)~12일(주일) 무주반디랜드

기타

- **제6기 신앙문화유산해설사 양성교육**
8.25, 9.1, 9.8, 9.15 매주(토) 오전 10시 센터
자격: 전주교구 신자로서 신앙문화유산
해설사 활동을 할 수 있는 교우(남, 여)
- <http://cafe.daum.net/jeonjudioc.guide>
(지원서)다운 받아 작성
- 전주교구청 안내실 접수(8월20일까지)
문의: 010-2955-9270 해설사 회장
- **노인사목 봉사자(어르신 성경공부 전문 봉사자) 양성교육(2차)**
일시: 8월 30일~10월 25일
(매주 목 오후 1시~5시 30분, 8주간)
장소: 중앙성당 강당 / 문의: 사목국
- **제3회 전주교구 창작생활성가제**
일시: 예선-9월15일(토) 오후 7시 센터
본선-12월8일(토) 오후 7시 장소미정
접수 마감: 9월 2일(주일)
우편접수: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0-6
가톨릭센터 청신교회 교육장장상가계담당자(이)
e-mail-eastrock81@naver.com
참가비: 5만원
문의: 285-0041(내선108번) / 010-4199-2890
참조: www.joyunho.org

- **제1회 전주교구 청년대회(J.Y.D)**
일시: 8월 25일 (토) 낮 12시~밤 10시
장소: 전주 시내 성지 및 전통성당
내용: 전주 시내 성지순례 및 미사 등
참가비: 1만5천원
문의: 285-0041(내선108번) / 010-4199-2890
참조: www.joyunho.org
- **전주인보노인복지센터 직원 모집**
대상: 요양보호사 1명
(요양보호사자격증소지자)
근무조건: 주간보호센터근무, 주5일제,
주 40시간 근무
제출서류: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자기소개서, 면허증(자격증사본)
접수기간: 채용시까지
문의: (063) 284-0295~6
- **서일성당 청년성가대 'Bliss' 공연**
8월 18일(토) 오후 7시 30분 서일 성당
문의: 010-2951-6559
- **교정사목 후원자를 모집합니다**
사회와 가족으로부터 단절되어 어둠과 절망
속에 있는 교도소의 형제들을 위해 희망의
빛이 되어주세요.
문의: 교정사목 전담사제
송현석 신부 / 063)230-1053

박창신 베드로 신부 은퇴 감사미사

일시: 8월 25일(토) 오전 10시 30분
장소: 모현동 성당

영화 두개의 문 상영

상영관: 전주디지털 독립 영화관
상영일시: 8월 5일(주일) 오후 4시 40분, 8
일(수) 오후 4시, 9일(목) 오후 2시, 오후 5시
40분, 10일(금) 오후 3시 40분, 오후 7시 30
분, 11일(토) 오전 11시, 오후 6시 20분, 12일
(주일) 낮 12시 40분, 오후 4시 40분, 저녁 8
시 20분, 15일(수) 오후 3시 40분
관람료: 5,000원
문의: 231-3377 전주디지털 독립영화관

전주가톨릭사회복지회 30주년기념
자원봉사자 특별 재교육
“기쁨과 희망 형성 아카데미”

일시: 9월 3일~11월 5일(매주 월) 오후 2시
장소: 교구청 4층 강당
대상: 1~17기 자원봉사자학과 수료자, 자원
봉사 재능 나눔을 하고자 하는 분, 사회사
목국 자원봉사단체(카리타스봉사단, 은빛세실
성가대, 운전기사 사도회, 사랑의다리 봉사자
회), 사회사목분야 자원봉사자(이주사목, 교
정사목, 장애인사목, 병원사목, 농촌사목, 노인사
목), 각 분야 전문직 정년 퇴임자
참가비: 5만원(별도 1강차 청강비용 1만원)
교육인원: 선착순 100명
접수: 본당사무실, 사회사목국(230-1073~5)
마감: 8월 29일까지

제4차 효소단식 · 침묵
복음서 통독피정

일시: 8월 20일(월)~24일(금)
오후 2시(4박 5일)
장소: 정하상 교육회관
문의: 041-863-5690~2/
010-8848-5690 1인 35만원

성 소 모임

일시: 8월 12일
장소: 본원
문의: 011-9176-1212
파티마의 성모프란치스코수녀회

살레시오회
남, 중고생 성소캠프

일시: 8월 13일(월)~15일(수)
장소: 대전 살레시오 캠프장
참가비: 3만원
문의: 010-3894-1332

하나투어 미래관광
성지순례단 모집

8월 31일 터키, 그리스, 아테리9일
9월 26일 터키, 그리스 9일
10월 20일 이집트, 이스라엘, 요르단 9일
285-1365 변효석 루도비코

돈보스코 여자재속회

장소: 전남대 정문앞 살레시오회
일시: 8월 12일(주일) 오전 9시~오후 3시
문의: 010-7650-3830
대상: 세상 안에서 축성생활을
원하는 미혼 여성

성 마리아 재속회
성소 모임

장소: 전주시 평화동
일시: 매월 둘째주 일요일 오후 2시
대상: 재속회에 관심 있는 미혼여성
문의: 02980-0385/010-6462-0385
비고: <http://cafe.daum.net/deulim>

삼성산성지 2박3일
말씀과 예술이 함께하는 기쁨 대피정

일시: 8.10(금)18:00~12(주일)15:00
강사: 정건석(프란치스코)신부의
문의: 02)874-6346, 5008
010-5600-7403

제주 성이시들 피정

(미사, 말씀, 성지순례, 자연피정)
*개인, 구역반장 및 단체 환영
일시: 9월1-4일, 9월9-12일, 9월16-19일,
10월6-9일, 10월16-19일, 10월22-25일
장소: 제주 성이시들 목장 내
신청: 02-773-1455 성이시들 피정센터

‘응급피임약’ 문제를 바라보며... 이금재 마르코 신부(가정사목국장)

지금부터 40년 전 정부는 국가 경제 성장에 가장 큰 걸림돌이 높은 출산율이라고 생각하고 본격적으로 가족계획 사업을 시작했다. 3명이 많다고 2명만, 그러다 2명도 많다며 한 가정에 1명 낳기를 강요하였다. 또 모자보건법(1973년)을 통해 낙태를 합법화하여 출산율을 줄이고, 오로지 경제에만 초점을 맞추며 비인간화의 길을 달려왔다.

그리고 40년이 지난 오늘날 정부는 그 정책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깨닫기 시작했고, 극단적으로는 국가의 존립까지 위협하는 사태에 이르렀다. 그렇게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정부에 우리 가톨릭 교회는 끊임없이 가장 인간적이고, 가장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외쳐왔다.

그런데 최근 정부는 이런 엄청난 실수를 또 저지르고 있다. 바로 응급피임약(사후 피임약),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후 낙태약을 정부가 이제 손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하여 우리 사회가 더욱 비인간화되는데 앞장서고 있다. 정부는 이야기한다. 응급 낙태약이 아니라고... 그런데 정말 그런가?

우리 교회는 분명히 선포한다. “인간은 난자와 정자가 수정되는 순간부터 시작되며, 이 때부터 아버지도, 어머니도 아닌 하나의 독립되고, 유일한 존재로 존중되어야 한다”(『생명의 복음』, 60항).

그런데 정부가 이야기하는 응급피임약은 바로 수정된 존재가 어머니의 자궁에 착상하는 것을 막아 성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분명하게 초기 인간 생명을 죽이는 낙태약이다.

또한 이 응급피임약은 여성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친다. 응급피임약이 일반 피임약보다 호르몬이 10-15배가 높기에 1회 복용만으로도 심한 복통과 두통, 출혈과 구토 등 다양한 부작용과 심지어 불임의 심각한 원인이 될 수 있다.

이 응급피임약의 또다른 피해는 청소년들이다. 청소년들은 이 약의 진실을 잘 모르기에 그저 단순한 피임약으로 생각하고 자신들이 언제든지 성관계 후 먹으면 안전할 것으로 믿게 되고 이로써 하느님이 의도한 성(性)의 참된 의미가 아니라 언제든지 본능적인 욕구를 쉽게 해소하는 하나의 방편으로 생각하게 된다. 그래서 더욱 성(性)은 문란해지고, 이것은 향후 생명을 죽이게 되는 낙태를 조장하는 원인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정부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피임약의 효능이 그렇게 높지 않아 원치않는 임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런 정부의 태도를 보면서 철학과 비전이 없는 정부라는 것을 다시 실감한다. 요즘 우리나라의 최대의 화두 중에 하나는 저출산(2011년 1.23명)이다. 그래서 정부는 아이를 더 낳자고 홍보하고, 출산 장려금을 주는 등 막대한 자원을 쏟아 붓고 있다. 그러면서 한편에서는 생명을 죽이는 낙태약을 버젓이 피임약이라고 속이며 이제 마음대로 사용하라고 한다. 생명을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쉽게 죽이도록 허용하는 이 정부, 생명의 보금자리인 여성들의 몸을 생각하지 않는 정부, 국민들의 의식을 비인간화시키는 정부에게 우리는 분명하게 신앙인으로서, 그리고 참된 인간으로서 외쳐야 한다. “정부는 더 이상 비인간화의 길을 강요하지 말라.” “응급피임약은 낙태약이다.” “응급피임약의 일반약품 전환을 반대한다.”라고... 몇 십년 후에 또 후회하지 않도록 말이다.



제1독서 탈출 16,2-4.12-15

○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 알렐루야.

화답송 시편 78(77),3과 4ㄱㄷ.23-24.25와 54(© 24ㄴ 참조)
© 주님은 하늘의 양식을 주셨네.

복음 요한 6,24-35

제2독서 에페 4,17.20-24

영성체송 지혜 16,20 참조
주님은 하늘에서 마련하신 빵을 저희에게 주셨나이다. 그 빵은 누구에게나 맛이 있어 한없는 기쁨을 주었나이다.

복음찬송 마태 4,4
© 알렐루야.